

소비권(消费券) 발행 현황과 반응

1. 소비권 발행 현황

□ 금융위기 이후 소비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청두에서 시범적으로 소비권 발행(2008.12)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데 이어 2009년 1월부터 항조우(杭州), 후베이(湖北), 충칭(重庆)지역에서도 소비권, 관광소비권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권 발행이 이루어짐.

<표 1> 주요 지역별 소비권 발행 현황

지역	일시	소비권
청두 (成都)	2008년 12월 11일	- 청두시정부(市政府)는 전국 최초로 3,791만 위안에 해당하는 소비권을 발행. 소비권 발행 대상자는 2008년 12월 1일 ~ 20일까지 해당기관에 등록된 생활보호대상자, 농촌 5 보호대상(农村5保) ¹⁾ 자 및 유공자(重点优抚对象)등 379,100명 임.
항조우 (杭州)	2009년 1월 19일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외지 여행자들에게 약 4,000만 위안에 해당하는 소비권을 발급할 예정인 반면, 항조우 시민들에게는 몇 군데 지정한 여행지를 관광할 경우 50% 할인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힘.
	2009년 1월 20일	- 항조우시위원회와 시정부는 시,구의 재정 중 1억 위안 상당의 세수를 들여 670,000명에게 소비권을 발급함. - 소비권 발행 대상자 중 중소기업퇴직자와 장애인은 일인당 200위안, 시 및 구의 생활보호대상자는 1가구당 200위안의 소비권을 받음. 이외에 항조우 초,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약 85,000명의 민공 자녀들도 1인당 100위안의 소비권을 수령함.
난징 (南京)	2009년 1월 22일	- 난징시정부는 관광 및 소비 촉진을 위한 2가지 조치를 실시함. 1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화동지역 6성, 1시 ²⁾ 관광객들에게는 8,000만 위안 이상의 입장료 혜택을 줄 것이며, 난징 시민에게는 2,000만 위안에 해당하는 여행소비권을 발급함.

자료: 第一財經日報, 2009.2.10

1) 5개 보호란 생활방면(의,식, 주, 의료, 장례(고아의 경우 학비))에서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여기서 농촌 5 보호(农村5保) 대상자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 중 법정 부양인이 없는 자, 법정 부양인은 있으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노동 능력을 상실한 생활비 공급원이 없는 자들임.

2) 6성: 쟁쑤(江苏),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푸젠(福建), 장시(江西), 쑤둥(山东). 1시: 상하이(上海)

가. 청두(成都)

□ 청두(成都)시는 내수진작을 위해 2008년 12월 11일 ~ 29일까지 전국 최초로 3,791만 위안 상당의 소비권(유효기간 2009년 2월 1일까지)을 발행함³⁾.

- 소비권 발행 대상자는 도농생활보호대상자, 농촌 5보가구(农村5保户) 및 유공자(重点优抚人员) 등 총 379,100명으로 이들은 1인당 100 위안의 소비권을 수령
- 청두시 민정국(民政局)에 따르면 2008년 말에 발행한 소비권이 대부분 소비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청두시정부 관계자는 유효기간을 둔 소비권을 발행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소비를 자극하고 빈곤층의 소비를 늘릴 수 있기를 기대했다고 밝힘.

나. 항조우(杭州)

□ 항조우시정부는 향후 6개 구역(城区)의 50여 만 명에게 1억 위안의 소비권을 발급하여 춘절 연휴 기간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힘(2009.1.15).

- 항조우시 기업 퇴직자에게는 1인당 200 위안,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가구당 200 위안의 소비권이 각각 발급되었고, 항조우시 초, 중학교에 재학하는 농민공 자녀들도 1인당 100위안의 소비권을 받았음.
- 이 소비권은 련화(联华)마트, 귀메이(国美电器)의 항조우 전 지점에서 뿐 아니라, 항조우산 가전 제품으로 유명한 화리(华立)통신, 진쑹(金松电器), 모토로라, 화르(华日冰箱)등의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

· 이상 400여개의 상점 이외에도 항조우의 유명 관광지 48개 및 영화관, 체육관에서도 사

3) 이와 관련하여 로버트 먼델(Robert Mundell)은 중국이 소비 쿠폰을 발행할 것을 건의한 바 있음(2008년 말). 그는 청두의 소비권 발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향후 1조 위안 규모의 소비권(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 소비권에 대한 세금 공제 등의 조건)을 일반인들에게 발행할 것을 건의. 그는 중국의 연간 GDP규모를 약 28조 위안으로 볼 때 1조 위안 규모의 소비권 발행으로 대대적인 내수진작에는 역부족이겠지만, 3개월 이내에 소비권이 소비된다면 4배의 소비 승수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

용이 가능

- 상무부 장정웨이(姜增伟) 부국장은 청두와 항조우의 소비권 발행은 세계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시행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소비진작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다. 난징(南京), 광둥(广东)

- 이후 여러 지역에서 소비권 발행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어 난징에서는 2,000만 위안 규모의 농촌 지역 관광 소비권이 발행됨(2009.2.16).

- 이는 100위안 상당의 관광소비권으로 20만 가구에 발급되었으며 이를 통해 약 5억 위안의 소비 지출 효과를 기대

- 광둥 관광업계에서는 총 2,000만 위안에 달하는 관광 소비권 20만 장을 발행(2009.2.17)

- 광조우 난후여행(南湖国旅), 서부여행(西部假期)은 선전항공(深圳航空)등과 손잡고 이 지역 5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위안의 관광 소비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약 4억 위안의 직접적인 관광소비 창출 및 17억 위안의 관련 산업의 수입증대를 기대

라. Ningbo(宁波)

- Ningbo시 관광국(宁波市旅游局)은 2009년 2월 말부터 “Ningbo 아라지역 마음껏 유람하기(畅游宁波阿拉)” 프로젝트를 설명(2009.2.14)하면서, 이를 위해 1억 위안의 관광 소비권을 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2월 15일부터 관광 소비 쿠폰을 발급함.

- Ningbo시 관광국 천민셴(陈民宪) 부국장에 따르면 향후 관광 소비권은 주로 장삼각 지역에 발급될 예정임.

· 이는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를 겨냥한 것으로, 이때 약 7,000만 명의 관광객이 상하

이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350만 명의 외국 여행객들을 닝보 등 주변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임.

2. 소비권 발급 절차 및 운영

□ 소비권의 발급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첫째는 각 구(또는 현)의 민정부문이 먼저 선정된 업체들로부터 소비권을 구매⁴⁾(소비권 금액:현금 = 1:1)하여 발급하는 경우임.
- 또다른 방법으로는 민정부문에서 수혜 대상자들에게 소비권을 발급한 이후, 선정된 마트로부터 회수한 소비 쿠폰을 근거로 일괄 결산하는 방식이 있음.

□ 소비권 시행을 위해 선정된 업체들은 소비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소비 진흥책을 펼쳤음.

- 청두에서 최종 선정된 업체로는 홍치(红旗)와 후후이(互惠) 및 라오린취(老邻居) 연쇄점 등이 있음.
- 청두에만 800여 개의 지점을 가진 홍치(红旗)마트의 경우, 소비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00위안 소비권으로 108위안을 소비 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지점이 없는 지역에는 판매 차량을 배치하여 현장에서 소비를 가능하도록 조치

3. 소비권의 소비진작 효과

□ 청두에서 소비권 발행의 소비진작 효과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청두 홍치(红旗)마트의 경우,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하반기 매출액이 매달 떨어지고 있

4) 소비권 시행 업체 선정은, 우선 민정국의 주관 하에 각 구(또는 현)의 구매반(采购办), 재정, 기율검사(纪检), 회계 담당부서들이 공동으로 입찰 공모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통해 소비권 사용 지점(마켓이나 점포)을 지정

었으나, 소비권이 발행되면서 12월 매출액이 전달에 비해 수백만 위안이 증가했다고 밝
힘.

- 청두시 민정국(成都市民政局) 천상권(陈翔军) 부국장은 3,700여 만 위안의 소비권 발행으로 약 1
억 위안의 소비를 촉진했다고 밝힘.

- 청두시 민정국(成都市民政局)은 소비권 수령자가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비욕구가
큰 계층이었다는 점과 시기상 춘절을 앞두고 설맞이 용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등 특수
소비수요가 있었다는 점을 이번 청두 소비권 발행의 성공 요인으로 꼽음.

□ 항조우의 소비 촉진 효과는 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음.

- 지난 2월 10일까지 항조우의 각 상점에서 회수한 소비권이 5, 000만 위안을 초과하여 50%이상
이 회수되었으며, 그 중에 항조우산 가전제품의 소비가 가장 많았음.

- 항조우시 경제위원회(杭州市经委)가 107개 항조우산 가전제품 직영점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8일까지, 총 1,707대의 항조우산 가전제품이 판매되었으며, 누계 회수된 소비권이
49억 5,300만 위안이고 실제 판매액은 202억 9,300만 위안으로 소비권의 4배에 해당하는 소비지
출 효과를 창출하였다고 밝힘.

- 또한 항조우시 무역국(杭州市贸易局)의 샘플조사에 따르면, 쑤닝(苏宁), 귀메이(国美)등 23개의 지
정 가전제품 매장과 핸드폰 매장에서 회수한 소비 쿠폰은 81.4만 위안, 이를 통한 소비지출 총액
은 441.7만 위안으로 약 5.4배의 소비촉진 효과를 보았다고 밝힘.

- 제바이(解百), 인타이(银泰)등 4대 대형마트에서는 약 3.6배의 소비 효과를 본 반면, 일반 소형마
트에서는 1.8배에 그침.

□ 항조우의 소비권 발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기업들은 주로 항조우산 가전제품 판매업자들임.

- 항조우 쑤원(数源)과학기술유한회사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 동안 총 16.03만 위안의 소비권을 회수했는데, 이를 통해 855대의 칼라TV를 판매하여 매출액이 94만 위안에 달함.
- 쑤원(数源)과학기술유한회사의 모회사인 씨후(西湖电子集团)전자는 2월말까지 총 20만 위안의 소비권을 회수했고, 이로 인해 100만 위안의 현금 소비를 촉진했다고 밝힘.

4. 소비권 발행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

- 청두, 항조우 등의 지역에서 단기적으로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소비권 발행을 통해 지속적인 소비확대나 내수진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나 경제학자들도 상당수 존재
- 이들은 소비권 발행의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면, 오히려 사회보장체제 개선을 통한 장기적인 소비진작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
- 민정국 생활보호처장(民政局低保处处长) 민리(闵莉)는 청두의 성공을 확대해석하지 않으면서, 소비권 발행으로 내수진작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
- 인허(银河)증권의 쥘샤오레이(左小蕾)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소비권 발행을 통해 내수진작을 꾀한다면 일회적인 단기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
- 그는 후속조치가 결여된 소비권의 발행은 소비→투자→생산→수입→재소비의 순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현행 소비권 발행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 사회과학원 인구와 노동경제연구소(社会科学院人口与劳动经济研究所) 사회보장연구실(社会保障研究室) 장잔신(张展新) 부주임은 소비권이 중국 서민들의 소비 경향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소비를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중국 소비자들의 저축성향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소비확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

- 상하이 재경대학공공경제와 관리학원부원장(上海财经大学公共经济与管理学院副院长) 류샤오촨(刘小川)은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금융위기로 위축된 수출수요와 관련 제조업체들의 수요, 도로, 교육 및 문화 등 개인차원의 수요를 자극해야 한다고 주장
- 중앙재정대학 중국은행산업연구중심(中央财经大学中国银行业研究中心) 궈톈용(郭田勇) 주임은 소비권 발행 효과에 대해서 수혜 대상별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수혜 대상이 부유층일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총 지출의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권의 용도가 주로 생활필수품 구입으로 이어질 것 이므로 지출의 증가가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씨안(西安)시 정부 역시 소비권 발행을 통한 소비진작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⁵⁾

- 씨안시 상무국부국장(西安市商贸局副局长)인 황이칭(黄漪清)의 설명에 따르면, 농촌이나 산간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소비권을 발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이를 통한 소비진작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 때문에 소비권 발행을 미루고 있다고 밝힘.
- 산시성(陕西省)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장(社科院经济研究所所长) 쟡바오통(张宝通)도 소비권 발행 보다는 가전제품의 농촌보급(家电下乡)과 같은 조치들이 소비진작에 보다 효과적이며, 농민들도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

5) 씨안시 상무국국장(西安市商贸局局长)인 까오망시(蒿芒喜)는 청두와 항저우의 소비권 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후 씨안에 서도 소비권 발행을 건의한 바 있었으나, 결국 부결됨.

<참고 자료>

《21世纪经济报道》, “成都消费券消费近100%目前不会再发第二轮”, 2009.2.6

“杭州再发10亿消费券浙江消费券新政寄望促经济转型”, 2009.2.19

《第一财经日报》, “商务部肯定消费券扩大社保覆盖更可取”, 2009.2.10

《中国经营报》, “消费券:一场即将蔓延全国的狂欢?”, 2009.2.16

《中国经济时报》, “消费券:仅仅是刺激消费的权宜之计”, 2009.2.16

“成都救市猛药消费券'成效几何'”, 2009.2.16

“杭州消费券'拉动多少消费'”, 2009.2.16

“中国国情限制消费券功效放大”, 2009.2.16

(자료 정리: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 박사과정 이성란)